

# “게임기가 100만원”...어린이날 선물에 허리 휜다

## 반도체 ‘칩 플레이션’...콘솔 게임기 가격 고공행진 중동사태 장기화 여파에 AI 수요 급증 메모리값 상승

“아이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살 겸 저도 구매를 할까 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 머뭇거리게 되네요.”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의 선물을 고르던 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중동사태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이 반도체 ‘칩 플레이션’을 부추기면서 콘솔 게임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5일 광주 북구 한 게임기 매장. 이곳은

이른 시간부터 연휴와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사러 온 부모와 자녀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기기를 훑어보고 가격표를 확인한 뒤 결음을 돌리거나 구매를 미루는 모습이었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제품이 진열된 곳을 찾은 부모들은 며칠 만에 오른 제품 가격에 황급히 자리를 떠나며 아쉬움에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자녀를 달래느라 전뎀을

빼기도 했다.  
실제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이달부터 플레이스테이션5(PS5) 콘솔의 국내 소비자 가격을 기존 74만8000원에서 94만8000원으로 27% 인상했다.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는 디지털 에디션은 59만8000원에서 85만8000원으로 43% 올랐으며 고성능 모델인 PS5 프로 가격도 111만8000원에서 129만8000원으로 16% 비싸졌다.  
프로는 111만8000원에서 129만8000원으로 16% 인상했다. 이외에도 PS5를 원격으로 구동하는 포털 리모트플레이어 가격 역시 28만8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31% 인상했다.  
앞서 소니는 지난 달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시작했고, 이달 한국에서도 가격 인상했다.  
때문에 지난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플레이스테이션과 포털 등 주요 기기를 중심으로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인상의 주된 이유는 ‘칩플레이션(반도체+인플레이션)’이 지목된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AI 서버용 메모리에 투입되면서 콘솔 게임기 생산에 필수적인 D램(DRAM)과 SSD 등 핵심 부품의 단가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닌텐도 스위치2의 한국 판매 가격은 64만8000원으로 36만원이었던 스위치1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졌다. 여기에 인기 타이틀인 마리오 카트 월드(9만8000원), 포코 피어(8만8000원) 등을 함께 구매할 경우 7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자녀 선물을 구매하려 온 50대 김모씨는 “올 초 아이에게 콘솔 게임기 선물을 약속해서 매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가격 부담이 커 매장 구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에게 다른 선물 대안을 찾아 말해야

될 거 같다”며 “최근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노트북 등 제품 가격이 치솟는 걸 보면서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플레이스테이션 등 가격 인상이 다른 콘솔 가격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원가 압박 등을 언급하며 엑스박스 시리즈X의 가격 조정 가능성을 드러낸 바 있어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니의 콘솔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 어린이날과 같은 성수기에도 소비자 체감 부담이 확연히 커졌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플라스틱 용기 납품 공정성 조사 중기부, 내일부터 7개 위탁사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선제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개사다.  
서면조사 결과, 이들 위탁기업은 최근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약 3200억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벌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2개사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2개사 △다수 수탁기업과 거래 중인 기업 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에서는 연동약정 미체결,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에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행위,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방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KT는 가족이 함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앱 'KT 패밀리박스'에서 지난 4일부터 3주간 '알아두면 쓸모 있는 패밀리박스'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 KT, 가정의 달 맞아 온 가족 맞춤형 혜택 마련

### 퀴즈 참여시 숙박·외식·놀이공원 경품 등 제공

KT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고객과 2030 고객, 온라인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혜택을 내놨다.  
KT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앱 'KT 패밀리박스'에서 지난 4일부터 3주간 '알아두면 쓸모 있는 패밀리박스'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족 혜택 앱 '패밀리박스'에서는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며, 매주 출제되는 문제를 맞히면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 외식

상품권, 놀이공원 이용권, 모바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 식품·생활·건강 관련 제휴 할인도 함께 제공된다. 앱 내 쿠폰을 통해 식료품 쇼핑, 생활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가정의 달 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족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어 쓰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매주 출제되는 문제를 맞히면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 외식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전남진흥원, 가상융합산업 기반 확대 방문객 대상 '실감형 가상융합 체험존' 운영

(제)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미래 가상융합산업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지역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감형 가상융합(XR) 체험존'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체험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 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민이 가상융합기술을 쉽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가 디지털 기술을 친숙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체험존에서는 신체 움직임을 활용한 '가상 체육 시스템' 기반의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운영됐다.  
참여 어린이들은 가상공간 속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게임 요소가 결합된 실감형 콘텐츠를 즐겼다.  
또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성 덕분에 현장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가상융합 및 XR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선보인 콘텐츠는 향후 지역 기업과 연계한 실증 및 사업화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가상융합 산업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지역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감형 가상융합(XR) 체험존'을 운영했다.

# 컨벤션홀 임대

- 📍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광남일보 사옥 1층)**
- 📺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 🏛️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 👥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임대문의 : 062)370-7080**